美 악재로 코스닥 4.59% '뚝'… "韓 증시 영향 제한적"

〈채권 금리 급등〉

외국인 4547억원 '매도 행진'
아시아시장 후폭풍에 초긴장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33.64포인트(-1.33%) 하락한 2,491.75으로 마감한 5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1.25포인트(-4.59%) 하락한 858.22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8.80원 오른 1,088.50원으로 장을 종료했다. /뉴시스

'트럼플레이션(Trumpflation·트럼프발 인플레이션)'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이고 있다. 패닉(공황)에 빠진 주식·채권 투자자들은 금융시장에서 한 발 빼는 모양새다. 미국의 임금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미국 기준금리)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공포감이 전 세계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 시장에선 지금이라도 보유 자산(채권·주식)을 던져야 할 지, 아니면 조만간 진정되길 기다려야 할 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점증하는 '플래시 크래시' 공포

5일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지수는 41.25포인트(4.59%) 급락한 858.22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지수도 33.64포인트(1.33%) 내린 2491.75에 마감했다. 외국인들은 이날 코스피시장에서만 4547억원을 팔아 2월 들어 1조1993억원어치를 시장에 던졌다.

원·달러 환율은 8.8원 오른 1088.5원에 마감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가 2.55% 하락한 것을 비롯해 대만 가권 등 아시아시장도 선별적으로 '블랙먼데이'였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국채 금리를 자극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2.84%를 기록했다.

주리엔 티머 피델리티글로벌 매크로담당 전무는 "이번 증시 폭락은 금리 문제"라며 "주식시장이 마침내 채권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연구원은 "올해 장기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되면 뉴욕 증시에서도 경제성장세보다 금리 상승세가 강해지는 구도가 형성돼 추세 하락 국면인 역금융장세로 반전될 수 있다"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주목할 것은 글로벌 경제의 양호한 성장보다 새로운 반전요인인 미 장기 시장금리의 상승세 지속 여부"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이후 제기돼 온 국채 가격의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순간 폭락)'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추가 하락에 대해선 제한적이란 평가가 많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8%를 넘어섰으나 그 기저에 경기 회복세가 있어 코스피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나 증시는 시차를 두고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美 금리인상 본격화될 땐 '퍼펙트 스톰' 우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그냥 넘기기에는 찜찜하다. 악셀 웨버 UBS 회장·전 독일 중앙은행 의장은 "올해 인플레이션이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1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대비 2.9% 올라 8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트럼플레이션과 맞물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횟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추가 4차례 인상에 나설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불가피해 진 셈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 자체로 한국 경제 큰 부담이다.

금융시장엔 직접적인 충격이 우려된다. 1990년 이후 미국은 크게 세차례 금리를 올린다. 그때마다 한국 증시는 독감을 앓았다. 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1994년 2월 4일 연준이 금리를 3.0%에서 3.25%로 처음 올린 뒤 코스피는 43일간 11.7% 하락했다. 또 1999년 6월30일(4.75%→5.00%) 이후에는 62일간 23%, 2004년 6월30일(1.00%→1.25%) 뒤로는 80일간 23.1% 주저 앉았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금리 상승→자금조달 위축(부채절벽)→투자감소→경쟁력 약화→재무리스크(부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인상은 수출에도 부담이 된다. 원화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한편 14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도 걱정이다. 그 위험성은 경험적으로 잘 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부채가 순간의 정책 실패나 외부 충격과 결합할 때 충격은 핵폭탄급으로 돌변한다. 세계 경제사를 봐도 심각한 경기침체는 가계 빚에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주곡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만나 터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1990년대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자산거품이 꺼진 원인이 됐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KT&G VS **IBK기업은행**

차기사장 후보, 백복인 확정 vs "주주총회서 연임 반대할 것"

〈現 사장〉

3월 주주총회서 연임 여부 결정

백복인 KT&G 사장. /KT&G

KT&G 차기 사장후보로 백복인 현 KT&G 사장이 확정됐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5일 백복인 현 사장을 차기 사장후보로 선정해 이사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되면 백 사장은 향후 3년 임기동안 KT&G를 이끌게 된다.

사추위는 "사업에 대한 장기비전 및 전략, 혁신 의지, 글로벌 마인드 등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결과 백복인 사장을 최적임자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지난 3년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리더십 측면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공채 출신 첫 CEO인 백복인 사장은 1993년 입사 이후 26년 동안 전략, 마케팅, 글로벌, 생산 · R&D 등 주요사업의 요직을 거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아 왔다.

지난 2015년 KT&G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글로벌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끝에 지난해 '해외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자담배 시장이 급격히 확장되는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을 성공적으로 출시해 시장에 안착시키는 등 굵직한 현안들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왔다.

백 사장은 국내외 현장에서 다진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현장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기획력과 스피디한 업무 추진력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백복인 사장은 "회사가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환경 속에 놓여있는 가운데 차기 CEO 후보로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외 사업 강화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경영참여' 공시… 선임 절차 비판

IBK기업은행이 KT&G 백복인 사장의 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기업은행은 KT&G의 2대 주주로 경영참여 선언과 함께 다음달 열릴 주주총회에서 백 사장의 연임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일 KT&G의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꿨다.

KT&G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9.8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며, 기업은행(지분율 7.53%)과 퍼스트이글인베스트먼트(5.48%), 블랙록(5.47%) 등이 KT&G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KT&G 지분율은 6.93%다.

기업은행이 경영참여를 선언한 이유는 최근 진행된 KT&G의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KT&G의 사장 선임과 관련해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사장추천위원회가 일정을 강행해 '경영참여' 공시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KT&G 사추위는 이날 사장 선임을 위한 면접을 거쳐 기존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만약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백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KT&G는 지난달 30일 저녁에서야 사장 공모를 위한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서류 접수는 단 이틀만 받았다. 이후 하루 만인 2일 서류 심사를 완료하고, 이날 최종 후보를 선정했음을 감안하면 모든 절차에 걸린 기간은 단 5일에 불과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KT&G 주식 매각 방침을 철회한 만큼 경영투명성 등을 위해 주주로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총에서 백 사장의 연임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과 함께 사외이사 선임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면서 기업은행은 KT&G에 이사와 감사의 선임·해임, 정관변경, 배당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백 사장의 연임 여부는 주총 표대결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업은행, 외국계 투자자 등 5% 이상 주주들의 지분율은 30%에 달한다. 그간 백 사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전 임직원들의 고발 등을 고려하면 기관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KT&G 주식의 매각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매각을 통한 일회성 이익 효과보다 자기자본비율 제고와 추후 배당수입 등을 감안해 계속 보유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설 상차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1%↓

〈서울 기준〉

서울 전통시장의 설 상차림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약 21%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시내 25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몰 등 61곳의 설 상차림 비용을 조사해 5일 발표했다.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25명은 지난달 29~30일 통신시장과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10곳 등을 방문해 설 성수품 36개 품목의 소매 비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7만5600원, 대형마트는 22만2760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1%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락시장 내 가락몰에서의 구매비용은 16만2960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7%, 2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 성수품 구매비용은 전년대비 전통시장 1.8%, 유통업체 2.3%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채소류와 과일류는 하락, 수산물과 가공식품, 축산물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사는 점차 단출해지는 차례상차림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사)한국전통음식연구소 자문과 서울시민 대상 설문(간소화 의향 있음: 67%) 결과를 반영해 조사 단위를 정했다. 사과·배·단감은 각 5과에서 3과, 부세는 3마리에서 1마리, 동태살은 1kg에서 500g, 전 부침용 육류(쇠고기·돼지고기)는 각 600g에서 200g, 달걀은 기존 30개에서 10개 등으로 조정했다.

공사는 설 성수기 사과는 평년대비 생산량이 많아 전반적인 시세는 약보합세일 것으로 예상했다. 배는 산지 물량이 많아 공급이 원활하고, 시세는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감은 저장량이 적어 강세를 보이고, 제수용 대과 위주의 강세 형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무 등 채소류는 한파의 영향으로 전주대비 가격이 급상승하고, 피해가 심한 무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량의 반입이 늘어 품위별 가격 편차가 클 전망이다.

동태와 명태포는 러시아산 반입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비축물량 방출로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산 쇠고기는 설 연휴가 짧고 출하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시세는 안정적일 전망이다. 국내산 돼지고기(앞다리살)는 출하량 감소가 예상돼 강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공사는 내다봤다.

/이범종 기자 joker@